

지역 환원사업에 팔 걷은 전력그룹사

한전KPS, 광주·전남 학생들에 '스마트 학습장비' 후원금 전달 한전KDN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개선 지원사업' ... 7개사 선정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그룹사들이 지역 맞춤형 사회환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KPS는 광주·전남 학생들에게 전할 '디지털 스마트 학습장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4억원을 광주·전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스마트 학습장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습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PS는 전남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스피커 구입 지원금 2억원을 전하고, 광주시교육청에는 드론과 태블릿PC 구입 지원금 2억원을 차례로 전달했다.

지원금은 광주 특성화고 13개 학교와 전남 85개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학습기기 구입에 사용된다.

한전KPS는 지난 2020년 1차 지원사업으로 5

억원 규모의 태블릿PC를 지급하며 정보취약계층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학습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2차 학습장비 지원에는 태블릿PC 뿐만 아니라, 원격학습에서 원어민 강사의 '직강 효과'를 발휘하는 AI스피커와 차세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교보재 등으로 지원품목을 다변화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초·중·고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국 마이스터고교 학생들을 미래 기술명장으로 육성하는 'KPS-패러다이스쿨'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회사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전KDN이 7개사를 선정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개선 지원사업'에는 총 67개사가 모여 전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전KDN은 지난달까지 공개 모집한 뒤 서류 심사과 현장 심사를 거친 뒤 이달 말께 최종 7개사

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와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대상이다. '경영개선지원' 대상 7개사를 선정할 뒀 이 가운데서 성장가능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K-스타' (우수기업)를 3개사를 선발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개선지원' 공모에 선발된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1500만원 이내,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은 2000만원 이내 무이자 대출지원을 시행한다. 선발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까지 함께 지원한다. K-스타 기업으로 뽑히면 100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는다.

한전KDN은 코로나19로 해외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온라인수출 상담회, 중국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의 해외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마을기업 스마트화, 사회적기업 앱을 활용한 지역 취약계층 일거리 연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명절에 건강 선물하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1층 식품관 '정관장' 매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홍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4일까지 제휴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 상당 상품권을 증정하며 다음달 3일까지 선물용 상품을 품목별로 10~20%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농촌경제연구원, 국내외 식량안보 연구자 온라인 연수 성료

77명에 정책강의 등 22차례 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외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연구자 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벌였다.

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KAPEX)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 대상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아르메니아 공무원과 관련 연구자 77명이 연수를 받

았다.

'KAPEX 온라인 연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분야 및 ODA 사업 수립에 따른 전문적인 정책강의로 구성됐다. 나라별 KAPEX 사업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 강의를 통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과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참가자들은 정책강의 18차례 등 총 22차례의 강의를 들었다.

이번 연수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역백신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금

산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기관도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가공 기업, 한돈 농업회사법인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연수생들은 관련 정책강의 및 현장 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KAPEX 중기연수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연수생 초정이 어려워 온라인 연수로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43만 수급자 위한 여행복지물 구축

플러스엔과 협약 체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43만 사학연금 수급자를 위한 여행복지물을 구축했다.

사학연금은 최근 플러스엔과 여행복지물 구축을 위한 '여행복지물 운영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의 숙박시설을 보유·연계한 플러스엔은 온라인 최저가격 수준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러스엔은 자체 보유 숙박시설 및 관계사 숙박시설 중 연중 약 300개를 사학연금과

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연말부터 사학연금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여지고 있다.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1월 중순에 전면 재구축했다.

김경태 사학연금 연금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조로워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행복지물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올 3조4000억원 추가 수입

오는 4월부터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약 3조4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4000억원이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올해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다.

한전은 전력 생산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3분기 1조1298억원의 누계 영업이익자를 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한농연 전남도회와 농수산 식품 육성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김춘진 사장이 나주 본사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와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측에서는 강도용 회장과 전주석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국내의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와 국산 농수산식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수산식품 유통 선진화에 힘쓰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



김춘진(가운데) aT 사장과 강도용(오른쪽 세 번째)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장이 11일 나주 본사에서 만나 농수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aT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